

# 안전한 배달 문화 조성 위한 민·관 협의체 출범

- 6월 9일 첫 회의 개최...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논의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소화물배송업(배달업)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(배달업 인증) 및 라이더 단체, 경찰청, 교통안전공단, 보험업계 등과 「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」(이하 협의체)를 구성하고, 6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코로나-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더불어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,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.
  - \*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(명) : 410('18)→439('19)→397('20)→459('21)→484('22)
  - 이는 라이더들이 적절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업계의 관심도 부족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.
- 이번 협의체에서는 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, 참여 단체들은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마련·보급하는 데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.
  - 우선, 교통법규 준수 등 필수 안전수칙 숙지 및 상황별 대처능력 배양 등을 포함한 표준 교육안을 마련하고, 표준 교육안에 종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여건을 고려한 온·오프라인 교육채널을 다양화하며, 교육 참여 혜택 부여 등 교육 이수자 우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.
  - 또한, 안전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해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기업·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.
  - 이를 통해 연내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체계를 마련\*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라이더들이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  - \* 배달업 안전교육체계 구축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 예정('23.7.~'23.12)
-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“배달업이 코로나-19를 거치면서 국민생활의 한 축으로 성장했지만, 이륜차 난폭운전 등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”이라며,
  - “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배달 문화가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	책임자	팀 장	지동선 (044-201-4152)
	생활물류정책팀	담당자	사무관	강근하 (044-201-4158)

## 참고

# 제1회 배달업 이륜차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개요

### □ 개최 계획

- 일시/장 소 : 2023. 6. 9.(금) 14:00 ~15:30 / 용산역 ITX3
- 참 석 : 국토부 물류정책관, 교통안전공단, 경찰청, 교통연, 주요 업계\*, 공제조합, 손해보험협회, 종사자단체 등 30여명
  - \* 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, 만나, 스파이더, 슈퍼히어로 등
- 주요내용 :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 및 안전이 중시되는 시장 풍토 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자율 개선방안 논의

### □ 세부 일정

시간		세부 내용	비 고
14:00 ~ 14:05	5'	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	생활물류정책팀장
14:05 ~ 14:10	5'	인사말씀	물류정책관
14:10 ~ 14:20	10'	안전교육 협의체 운영방안 소개	담당 사무관
14:20 ~ 14:40	20'	안전교육 주요 추진방안 발제	교통안전공단
14:40 ~ 15:20	40'	참석자별 토의	교통안전공단
15:20 ~ 15:25	5'	차기회의 아젠다 발굴	교통안전공단
15:25 ~ 15:30	5'	총평 및 마무리	물류정책관

### □ 향후 계획

- 분과회의 활동 개시(6월말~) 및 차기회의 개최(9월말)